Since 1972 — Chunchoen Holy City Movement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8.7. vol. 22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기사내용 미리보기

01 성시화
2018 하반기 사역
02 특집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소리
04 칼럼
6.13 지방 선거에 대한 단상
05 인물
강원CBS 하근찬 본부장
06 선교1
KWMA 선교대회 소식
08 선교2
필리핀 단기선교 일지
09 선교3
EXPLO 2018 제주선교대회
10 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1 통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 사설/음악이야기
흔들리는 터전
13 잠깐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질문
14 교계소식
16 후원자 명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본부장 조영춘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신재원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033-256-1260 033-257-1260
holycc1972@daum.net

예술



환희
유명애 작 | 146x61cm | watercolor 2018

성시화

성시화 운동의 2018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 개최

올해 춘천성시선교대회는 강사의 일정상 10월 셋째 주에 열리게 됩니다. 본 선교대회의 주강사는 부산수영로교회의 원로이신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은 가장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성시화 운동을 펼치는 도시입니다. 이 운동으로 부산 복음화율이 7%-8%에서 11-12%로 상승하는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정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현역 못지않게 성시화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계시며, 전 세계의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성시화 선교사로서의 더 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교계 지도자들은 성시화를 위해 매년 약 10억 이상 모금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가정 사역, 교회의 부흥 사역에 사용합니다. 12년 전부터는 영호남이 서로 화합을 이루는 영호남성시화대회를 실시하며 영호남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타 도시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 춘천성시화가 재활성화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18 성시선교대회를 통해 각 교회의 부흥과 모든 영역들마다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춘천과 부산의 성시화가 동역함으로 국내외 성시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블레싱 춘천

블레싱 춘천의 사역은 우리 춘천 성시화운동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넘어 춘천이란 도시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도시로 축복하며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예수님도 첫 말씀으로 팔복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요즘은 뉴스나 사회적 정서가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문제 있는 기관으로 치부하게 되면서 축복이 아닌 우려와 문제집단으로까지 매도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죄와 문제를 가리거나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교훈과 말씀대로 축복의 손을 들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춘천을 축복하며 이 도시 안에 밀알처럼 수고하는 흩어진 모든 성도들과 사업장을 축복함을 통해 이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블레싱 춘천의 전반기 모임이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있어 이를 계기로 성시화의 모든 사역이 축복 사역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이 사역 확대를 통해 각 직장의 기독 신우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혹시나 힘들고 지친 교회나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구성하되 전반기부터 시작된 민들레 중보기도 팀을 중심으로 하여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축복하는 사역에 함께 할 사역자들과 일군들이 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세상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듯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 남한과 일본, 남한과 러시아 등등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이 나라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길 소망해야 할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군대가 이 도시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남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삼겹줄과 같은 연합의 고리로 연결될 때 세상을 변화 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만인기도운동, 만 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함께 힘력하여 도시 안에 거룩한 연합의 믿음 벨트를 만들 때 춘천이란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분열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남녀가 싸우고, 노소가 싸우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싸웁니다. 화합과 평화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분열하여 서로 건설적이지 못한 비난만 하며, 회의를 지속해서 파행하는 악독한 짓은 그만하고, 여러분이 먼저 화합하여 이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미혼모, 고아, 입양, 빈곤, 장애 등 사회와 국가가 외면하는 사회의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책을 세우시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탁상행정 말고, 정말 이 사회의 깊은 아픔과 어둠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을 밝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감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정책을 믿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히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믿고 힘을 부여하였으니, 약정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하시며, 모든 국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경히 여기지 않고 그 균형을 잘 잡아주는 지혜로운 위정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대학교 정우진

춘천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춘천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춘천시는 나름 큰 도시에 속하고 또 살기 좋은 도시인 걸 느끼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자랑할 수 있는 먹거리와 장소, 또 재개발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서울처럼 너무 혼잡하고 답답하단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면 춘천시가 점점 커진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열리고, 다른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걸 보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춘천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춘천이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분들께서 춘천시 문화와 먹거리들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춘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한림대학교 김태현

먼저 당선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여 4년을 책임지는 당선자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내봅니다.

- 약속(공약)을 지키는 사람 : 지역대표로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공적 약속은 자신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 까지도 평가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 밝은 에너지가 넘쳐 만나고 싶은 사람 :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마음은 상대를 배려하는 밝은 에너지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하게 소통하는 당선자를 기대해 봅니다.
-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 오늘에 안주하기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통일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를 준비하는 일꾼, 자신의 역량을 선한 일에 집중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을 기대해 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당선자분들께 소개합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부유함의 경험,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한 애굽에서의 노예생활, 기다림과 인내와 겸손을 통한 신앙의 견고함, 주어진 삶에 성실함으로 미래를 열어감, 낮은 자에서 애굽 왕의 총리로 자기 민족까지 구원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로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선자는 지역주민의 민의에 의해 선출된 일꾼입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기억하고 만나고 싶고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 일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세경볼링장 대표/ 온누리교회 이용운 장로

강원도지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춘천YMCA에서는 2005년부터 강원도청소년쉼터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많은 경험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서 청소년쉼터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며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는 전국적으로 130개소, 강원도에 5개소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없는 복지서비스 질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복지사 노동시간 단축 이후 임금체계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

먼저 민선 7기 지방자치선거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춘천에서 살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연 1조가 넘어가는 춘천의 세입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춘천역 부근에 있는 생태공원 관련 사업이나 레고랜드 사업 등 많은 곳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춘천시민 대부분은 수년째 관련 예산 투입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사업 등에 예산을 쏟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춘천시에 정말 중요한, 당장 필요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주세요!!

강원대학교 박하람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교육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1학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느낀 춘천시 석사동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학교 주변에, 여유롭게 산책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지천' 이라는 호수가 있고, 나무와 크기가 비슷한 작고 아담한 건물이 많아 자연과 건축의 조화로운 풍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많지 않아 주변 식당이나 상점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고,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도 자주 보았습니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더 설치해주시거나, 시간을 단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춘천은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택시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비록 춘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택시비가 저렴한 편이지만, 택시의 기본요금과 버스를 한 번 타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배 차이가 나고 택시 기사님마다 같은 거리라도 운전하시는 경로에 따라 요금이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인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잦은 택시 사용으로 인한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만약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스 대수와 노선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천교육대학교 김현진

시민들의 소리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강원도로부터 일시청소년쉼터는 야간전담 보호 인력비가 지원 되어 사회복지사의 근로 여건이 매우 개선되었습니다만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단기 청소년쉼터와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야간전담인력비가 지원이 안 되어 실무자들이 교대로 24시간 365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간전담보호 인력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쉼터 사회복지사의 근로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심 가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청소년쉼터도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운영방식 개선으로 그동안의 노력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단기남자 청소년쉼터 박형준 소장

춘천시장, 춘천시의장, 춘천경찰서장, 강원도교육감(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바랍니다.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지대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춘천시를 만들어 주세요.

월드비전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모니터링단은 2008년도에 창단되어 춘천지역 15개 읍면동 위원들이 아동 권리교육, 모니터링 활동, 정책제안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 5월에 모니터링 위원들이 스쿨존 안전에 대한 주제 이슈로 남산초등학교, 소양초등학교, 대룡중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성수여자고등학교, 성수중학교, 성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스쿨존 위험성을 알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 학교 앞 유도 간판이 없거나 전멸 신호등마저 없어 학교 등하교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남산초]
- 안전 펜스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거리에 스쿨존 명시 및 속도 제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도 필요합니다. [춘천중, 대룡중]
- 학원 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학교 주변은 드나드는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방과 후 학원차량 주차장 마련 또는 공간에 대한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소양초]
- 스쿨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유해환경이 많아 환경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춘천고, 성수여고, 성수고]

향후 모니터링 계획은,

춘천지역 총 16개 학교에서 2개 학교(● 후평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에서의 아동 스쿨존 안전 모니터링, ● 동부초등학교 과속방지 신호등 및 스쿨존 표시 관련 모니터링)를 향후 캠페인 조사에서 요청하신 추가 학교 주변 모니터링을 7월 둘째 주 정기 모임 시 진행하여 향후 관공서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지역이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배정 및 단계별 진행을 꼭 실시하여 주셔서 아동과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복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안영미 팀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모든 영역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투표율 60.2%를 기록하며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일이 넘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이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며 어떤 분야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어떤 계획과 실행목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생각과 기대, 염려에 대해 방심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의 교육정책의 부재와 학력 저하에 따른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발견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다.

또한 취준생들이 당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을 갖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며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사진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듣게 되는 실종사건과 폭력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관광과 교통, 경제 등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의 개선과 지원이 우선되는 지역 살림살이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부끄럽지 않은 지역 일꾼이 되길 바란다.

추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에 있는 각 분야별, 지역별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으면 합니다.

전국장애인교회학교연합회 강원지회장 평안성결교회 변춘자 전도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지난 4월 '미래에서 온 투표_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도)편'을 진행, 당시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아동정책공약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책의 주인공은 아동이지만 실질적으로 투표를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들에게 대신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비롯해 도내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아동이 제안한 정책공약은 "교육, 환경, 복지, 건강, 영양, 놀이, 여가, 교통 분야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바라는 정책공약 중에는 '어두운 지역 가로등 확대', '영화관 및 실내 놀이터 확대', '아동 전문 소아과 확충' 등이 있었다. 교육감 대상 제안 공약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시설 조성', '야간자율학습 및 숙제 축소', '스쿨버스 마련' 등 도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는 창립 이래 빈곤 아동들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들의 시선에서 환경이나 제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해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고주애 팀장

지방자치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집행하여야 할 사례 몇 가지를 제안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시정과 의정활동에서 "주민의 눈높이 맞추기"를 최우선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블록은 전면 교체보다는 부분 교체하여 예산 절약 바랍니다.

인도용 보도블록은 부분 교체로도 될 것을 전면 교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예산을 절약하여 소외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보도블록의 잦은 전면 교체 보다 춘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2. 플래카드의 "불법 부착과 강제 수거의 반복"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자주 목격하게 되는 "플래카드의 불법 부착과 강제 철거의 반복"은 시민정서나 2세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변 유료 게첨대를 대폭 증설하여 게첨 단가를 낮추어 주고, 플래카드 불법 부착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시청 지하 주차장 안내판에 영어 위주 사용을 시정 바랍니다.

신축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판을 영어로 "ELEVATOR"라고 크게 표시하고 한글은 그 밑에 아주 적게 "엘리베이터"라고 표기하여 한글은 멀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출구 표시 안내판은 "OUT"이라고만 표기하고 한글 부기도 없습니다. 영어로 주된 표기를 하고 한글을 부기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영어를 모르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에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춘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채택된 제안에는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장감리교회 조정일 장로

왜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자신의 초심을 재확인하기 바란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자신의 전문적 경력을 통하여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바란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출사표를 던지고 당선하였다면, 더 넓고 이타적인 자세로 무장하여야 한다. 자신의 장점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바란다.

- 도지사 : 강원도는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도민의 저력과 자긍심을 이끌어낸 도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3선의 도정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민생경제를 최우선에 두었으면 한다. 북방 정책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고, 레고랜드 사업 점검, 오색 케이블카 사업 등 도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었던 사업 점검을 냉철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 교육감 :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체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바란다. 즐겁게 공부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학교,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건강권을 지켜주는 학교,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학교 현장의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특정 성향의 교육주체로부터 균형을 찾는 학교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 시장, 군수 : 시정의 연속성을 살려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발휘하기 바란다. 자신의 공약 실천을 위하여 시민들의 삶이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민주적으로 점검, 추진하기 바란다.
- 시, 도의원 : 각 상임위 별 전문 분야가 다르다. 자신의 전문성과 출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임위 활동을 하기 바란다. 도정에 대하여 협력, 견제, 감시 등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한 자신의 결단과 의지, 실력을 쌓아야 한다. 당론에 휘둘리지 말고,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는 도의원이 되기 바란다.

전 도의원 김금분

정리. 편집부

칼럼

6.13 지방 선거에 대한 단상



글 | 신성균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강원대학교 영어영문과 교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역사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결과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요셉이 그의 꿈과는 정반대로 노예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는 데, 결국에는 이러한 정치훈련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된 후 부자격자로서가 아니라 유능한 총리대신으로서 가문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대제국 애굽(Egypt)과 주변 국가들을 구하는 것이다.

6.25도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6.25전에는 유교, 불교, 천도교, 샤머니즘 등의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현재의 일본, 인도, 이슬람국가 등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못하는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거의 모든 것이 붕괴되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12)의 말씀같이 새로운 토양 위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솟고 꽃이 피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욥이 모든 자식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심지어 부인과 친구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한 처절한 상황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모든 재난에서 회복되어 이전보다 갑절이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꿈은 대한민국이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셨다. 반만년의 계속적인 외침과 피지배 민족으로서 의 수치, 일제 치하의 노예생활, 6.25 전쟁으로 인한 잿더미로 몰락된 국가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전 세계에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외면적으로는 요셉의 경우와 같이, 예상과는 정반대로 사건들이 진개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히 로마서 8:28에 따르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주역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역이시고 그들은 조역에 불과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더욱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중차대한 시기에 2차 대전 때 기독교 국가인 독일처럼 나치의 국가가 되지 않고, 베트남과 같이 적화되지 않고, 우리가 꿈꾸는 성서한국, 선교한국이 되도록 구하자. 춘천 복음화, 성시화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내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노력하면 춘천성시화, 복음화도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하나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염원을 이용하셔서 복음으로의 통일,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통일, 성서한국, 선교한국으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인물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강원 CBS 하근찬 신임본부장



본부장님은 춘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어떻게 CBS에 입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춘천에 오시기 전에 CBS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춘천이 고향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다 춘천에서 나왔습니다. 성광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기자를 하면서 교계 출입 기자도 겸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교계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고하신 김주환목사님이나 이원호목사님, 그리고 은퇴하신 유동선목사님 같은 분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교계에서 춘천 기독교방송국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뜻을 모아서 1989년도에 춘천 기독교방송국(CBS)이 세워게 됩니다. 그때에 저에게 함께 하자는 권유가 있어서 CBS에 입사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춘천 CBS 창립 멤버인 셈이지요. 그리고 춘천에 오기 전에는 CBSi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사원 시절에서 앵커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춘천 CBS가 강원 CBS로 거듭나서 한층 더 폭넓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강원 지역 본부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잠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복음의 동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도 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세상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워낙에 메이저리그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보는 눈이 높아져서 어진간한 경기가 아니면 직접 가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음 세대들은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세대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기독 문화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접근해야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독 영화 보급에 힘쓰고자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신은 죽지 않았다.'와 같은 품격(品格)있는 기독 영화들이 다음세대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독 영화를 보급해서 다음세대들이 문화적으로 복음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교회의 젊은이들에게는 문화 콘서트를 통해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일례로 원주에 감리교 청년관 지하에 '숨' 카페에서는 정기적으로 '숨 콘서트'를 합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찬양 콘서트를 이 카페를 통해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 차례 진행된 '숨 콘서트'가 젊은이들에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기독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역 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쉽고 편안하게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원 CBS의 중요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 CBS가 신사옥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장단기 계획이 있을텐데 특별히 2018년의 주요 계획이나 과제가 무엇입니까?

올해가 강원 CBS가 2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원 CBS에는 두 가지 중요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영 자립이고 다른 하나는 신사옥 건축입니다. 신사옥 건축은 전임 나이영 본부장이 잘 준비해 온 일이라 후임자로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이라 여겨집니다.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사옥을 설립하는 것이 강원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고, 더 역량있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오자마자 만나는 분들에게 후원 요청을 하기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시작한 일이니 꼭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강원 CBS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데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신천지, 안산홍 등 같은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감당하며 복음 방송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CBS 방송국이 그동안 대형교회들이 힘을 써 주셔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중소형교회 목사님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은 면도 있는데, 앞으로는 폭을 더 넓혀서 중소형 교회 목사님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밀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강원 지역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만나는 분들에게 당장 신사옥 건축을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선용해서 시작한 일이 완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지면으로나마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 CBS가 지역 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 분단 도(道)의 수부도시인 춘천에서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기독교 방송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 이병철 목사 (부본부장) · 사진 | 이은정 권사 (사무국장)

유머



아담 국적

아담은 한국민족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담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아 한국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요? ..."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선교 1



"함께 그날까지!!"

KWMA 세계선교대회를 다녀와서

"4차 산업혁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
KWMA2018 제7차 전략회의 (NCOWE VII)

선교 130년을 넘어선 한국교회는 2만 7천에서 3만 명이라는 파송선교사를 자랑스럽게 언급한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선교대회가 열렸다.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Korea World Mission Association 이하 KWMA하 함)가 주관하고, 부산성시화운동본부와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이하 KWMC라 함)와 KWMF(한인선교사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선교대회가 부산수영로교회에서 "함께 그날까지(마24:14)"라는 주제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선교대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선교적 이슈와 변화의 물결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라는 명제를 두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저녁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선교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KWMA2018 제7차 전략회의 (NCOWE VII)였다. 예상했던 인원을 훨씬 넘는 1,5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리에 선교대회를 마쳤다.

매시간 국내와 해외, 목회자와 선교사, 글로벌 리더들을 배치하여 선교의 전반적인 정보와 세계를 열어주는 순서들로 진행되었다. 새벽에는 특별선교부흥회 형식으로 정필도목사, 김문훈목사, 윤원로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였다. 권역별 선교사 현장보고 시간은 선교 현장의 생생한 보고와 희로애락으로 가득한 선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집회는 매시간 두 분의 강사가 세워졌는데,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다.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와, 로렌 커닝햄 목사(국제예수전도단), 하형록 목사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정민용 목사와 북한에 2년 6개월 감금되었다 풀려나신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께서 담당하셨다.

특별히 1935년생의 로렌 커닝햄 목사는 고령의 나이에도 생명력 넘치는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북한 감옥에서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무사히 돌아오신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 생활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배푸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셨다.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신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강조하셨다. '회개'라는 단어를 집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촉구하였다. 사상과 이념으로 분열된 목회자와 성도, 한국교회의 현실을 심히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두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 통일조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온 맘으로 선포하였다. 두 번씩이나 동상 걸리고 빠졌다 새로 나온 발톱을 보면서 받은 고난 속의 축복된 말씀을 다 듣기에는 저녁 시간이 짧고 부족하였다. 못 다하신 은혜의 말씀은 집필 중인 저서를 통하여 접하도록 안내해주셨다.

60주년을 맞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성령 충만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주 토요일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에 전념한다고 하였다. 성령 충만이 목회와 선교의 지름길이요, 최선의 방법이라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심방하고, 구제하는 목회와 선교,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목회요, 선교라고 강조하였다.

낮 시간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Key Note Speech, 각 주제발표, 권역별 전략회의, 영역별 발제와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Key Note Speech로 나선 KWMA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와 서동혁 교수께서 '함께 그날까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과 선교'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선교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도모하였다.

선교 전략가이신 한정국 선교사, 성남용 교수, 배안호 선교사, 김찬곤 목사, 김양제 목사, 김종국 선교사와 하충엽 교수, 여주봉 목사와 황성주 박사, 조나단 봉크 박사가 급변하는 시대의 선교적 모델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파라과이 배안호 선교사는 십일조 기도와, 하루 일곱 번 찬양,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여 새벽기도의 중요성, 어디서나 새벽기도와 하루 일곱 번 찬양으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자고 열정적으로 외치셨다.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는 군선교와 청년선교가 다가오는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며, 지속적인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 세우는 사역이라고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하였다. PPT자료 함께 보여주며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말뿐인 선교 대안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8개 영역의 주제별 강의시간은 선교와 영성, 선교 동원과 자원 개발, 총체적 위기관리, 선교 시스템, 디아스포라, 통일과 그 이후, 함께 그날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들 각자가 준비한 귀한 자료를 제시하여 선교 정보와 선교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도 함께 하였다.

영역별전략회의 시간에는 20개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전방개척선교, 선교적 목회 목회적 선교, 플랫폼 선교, 선교 거버넌스, NGO 선교, BAM 선교, 파트너십과 선교 현지 교회 선교 동원, 선교 리더십, 여성 선교사, 통일, 난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문화예술 선교, 선교 영성, 선교 재정, 선교행정 첨단, 위기관리와 멤버 케어, MK 케어, 선교사 비자발적 철수와 순화 배치, 선교사 은퇴 등 다양한 선교 현장의 이슈에 대한 토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열띤 시간이었다.

특별히, 상하이 엄기영 목사는 전체 강의 시간에 BAM 선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 선교의 위기 시대에 대안이라고 열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주제들은 결코 선교 현장의 선교사에게만 국한하는 주제들이라고만 보이지 않았다.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 눈에 띄었다.

모든 족속을 선교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권역별 전략회의에서는 19개 영역으로 구분한 지역을 토대로 영역별 선교사들이 한자리에서 선교 현장의 공동 관심사와 문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방안을 도모하였다.

특히 중국지역 영역에서는 중국정부의 종교 조례와 시행을 통해 겪는 선교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겪은 선교사들이 간증하며 심각한 선교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심지어 한국에 유학한 학생들을 소화하기도 하고, 유학하러 오는 학생들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와서 교회 갈 때는 기숙사에 핸드폰을 두고 다닌다는 소식은 선교 현장의 고난과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국내 이주민 선교에 관하여서도 해외 선교 못지않은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마다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통계를 근거로 어떻게 그들을 선교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복음과 함께 가도록 할 것인지를 현장의 국내선교사들을 통하여 듣는 시간이었다.

주최 측인 KWMA에서도 세계 선교 동향을 담은 지도

와, 국내 외국인 통계를 실은 지도를 등록자 모두에게 배포하였다.

선교대회의 특징으로 선교 감사행정 시간은 특별한 감동의 다가왔다. 공동선언문 발표, 공로패 증정, 추모의 시간, MOU 협약서를 수여하는 순서였다. 한국 선교역사상 생존하시는 분 중 선교계의 대부로 칭송받는 84세의 조동진 박사님에게 공로패 증정하는 순서도 있었다. 먼저 선교하다 소천하신 동료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시간, 글로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선교기관, 선교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를 증정하는 시간, 선교에 헌신하는 11개 모범 교회들을 선발하여 공로패를 증정하는 순서도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은혜의 감동을 안겨주는 순서였다.

3박 4일간의 일정 속에 받은 은혜의 유통기간, 보존기간은 다양할 것이다. 많은 설교자, 다양한 강사들을 통해 주신 은혜와 감동, 도전과 깨달음은 많은 부분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잊혀 지게 될 것이다. 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강의안은 선교대회를 통해 주신 또 다른 특별 은혜다. 지속적인 선교대회의 감동과 지혜를 담아주는 귀한 자료이다. 고유의 설교와, 전문적인 강의, 독특한 선교 간증, 역동성 넘치는 선교보고를 비롯하여, 주제별, 영역별, 권역별 자료를 한 권으로 손에 쥐어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다. 대회를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편집, 인쇄하였다. SNS 단체방을 설치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반영한 모습이 보였다. 모든 순서마다, 예술 분야의 헌신된 사람들을 세워 찬양, 국악찬양과 연주, 샌드 아트, 글로벌 찬양까지 KWMA의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 구성도 은혜 분위기를 더욱 높였다.

한국 선교만의 특성인 통일과 선교, 선교적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통일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는 하충협교수의 강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관심을 고조시키는 주제였다. 4차 산업혁명과 통일은 새로운 선교시대의 전략수립과 선교네트워크 구축을 함께 도모해야 할 과제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종족들의 디아스포라도 함께 다루어야 할 주제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디아스포라 시대를 향한 선교전략과 방향도 관심사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초연결, 빅데이터, 융합을 바탕으로 선교와 목회도, 네트워킹을 통한 연합체 구성과 연합사역의 생명과 역동성을 모색하도록 대안을 촉구하였다.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말씀과 강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아쉽기도 하였다. 강사들도 시간 부족의 안타까움을 언급하고, 진행상 타임키퍼를 배치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간 동안에 한국선교계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전략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준 KWMA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순서마다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적절히 참석하도록 배치하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여 함께 기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담아내는 네트워킹, 연합의 선교대회였다. 청년들로 구성된 비전 선교단 선교 헌신자 100여 명의 자원봉사가 KWMA의 필요한 손발이 되었다.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3박 4일 동안 은혜의 샘물 바다에 참석할 수 있었다.

1991년부터 시작하여 4년마다 개최해온 KWMA 세계선교대회는 선교의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고 도모한 자리였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핵심 키워드와 같이 선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도모하고 세계선교의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통일 이후의 한국교회와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준비해준 KWMA와 같이 우리 춘천성시화운동본부도 통하여 전 시민과 교회, 성도들이 통일조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선교적 도전을 주는 선교대회를 준비해 봄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다.

"통일과 그 이후"로 심금을 울리는 강의로 모든 참석자들로 박수갈채를 받은 하충협 교수(숭실대학교)의 강의 중 일부를 원고에 실으면서 은혜 감동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람이 만든 핵보다 신이 보낸 사람의 피가 더 위력이 있다. 핵은 전멸이지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자기 제한을 갖고 있는 극적인 순간이고, 신을 담는 최고의 경지다. -중략- 통일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도상을 열어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 북한에 일어날 것이다. 순교자의 피는 세계선교의 확장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환동해 경제가 열릴 것이다. 육로, 대로, 항로가 열린다. 입이 먼저 열려서는 안 되고, 눈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직시하고 통일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글 | 이연희 목사 (아미교회/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Seminary

신입생 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간)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
연구원	(주/야간) 4학기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또는 이수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됨

사이버 신학과정 문의 : www.cds.re.kr 02)3472-3181

〉소개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신학으로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입니다. 본 교단은 여목제도가 있습니다.

〉특전
방학없이 2년 8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여목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본 과정은 서울 본원과 각 지역 캠퍼스와 동일함

〉입학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사진, 신분증 사본
편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총회신학 춘천캠퍼스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3
033)243-5354 / 010-5370-6047



위치 : 강원대학교 병원 앞 굿모닝약국 3층

선교 2



2018 필리핀 단기선교 일지

지난 6월 10일(일)부터 16일(토)까지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단기선교팀 35명이 필리핀 바탕가스, 마닐라, 딸락 지역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 가운데 단기선교를 수행하였다. 이번 단기선교는 크게 2018 필리핀 구국기도대성회, 목회자 세미나, 아이따족 섬기기 사역을 주축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동역하였다. 이수형 목사의 집회 말씀 사역과 함께 성도들의 다양한 문화선교 사역(난타, 몸찬양, 여성 중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에는 24명의 미리내 색소폰 오케스트라와 테너 오승룡, 소프라노 민은홍이 협연하여 단기선교사역에 큰 활력과 감동을 불어넣었다. 5월부터 각팀 별 공연 준비를 하며 오리엔테이션, 선교 강의, 기도, 총 리허설 등으로 하나되어 기도로 준비하며 방향을 세우고 열정으로 달려가는 선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

첫째날, 6월 10일(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7시 30분경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약 4시간 10분의 비행 후 밤 10시 40분경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김종국 선교사, 홍영기 선교사와 홍현지 등 유학생들의 마중으로 2대의 버스에 분승한 선교팀은 2시간 30분 정도 후에 첫 사역지인 바탕가스시에 새벽 3시 40분경 숙소에 도착하여 여정을 풀고 휴식과 수면을 취하였다.

둘째날(11일, 월) 필리핀 마닐라 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바탕가스시는 지난 1월 춘천시와 농업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현재 약 55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사전교육과 농가배정을 거쳐 농사일을 거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바탕가스주의 주도로서 춘천시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어 이번 구국기도성회를 열게 되었다. 새벽에 도착한 팀원들은 여유롭게 일어나 그룹별 QT로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있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찬양과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이수형 목사, 장로들은 김종국 선교사의 안내로 바탕가스시의 시장과 경찰서장을 집견하였다. 시청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성이신 Dimaculha 시장을 만나며 춘천시와 자매결연, 구국기도성회, 독립기념일 축하, 한국-필리핀의 우호관계 등을 환담하고 바탕가스시와 시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다. 특별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Geledio 서장과의 환담에서는 마약문제, 필리핀 기독교의 부흥, 비전 등을 나누며 기도와 지속적인 방문을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바탕가스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는 GFC(Greenhills Christian Fellowship)로 이동한 선교팀은 간단한 중식 후에 찬양으로 시작한 세미나에서 순복음춘천교회 선교팀과 미리내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난타, 몸찬양, 여성 중창, 색소폰 연주, 성악 등으로 필리핀 목회자들과 모든 참석자들과 은혜와 감동을 나누었다. 이어서 이수형 목사는 "소그룹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이란 제목으로 소그룹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현지 목회자들과 비전을 나누었다. 석식 후 숙소로 돌아온 선교팀은 각 그룹별로 내일의 구국기도성회 준비와 휴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셋째날(12일, 화) 구국기도대성회는 필리핀 독립기념일(6월12일)을 맞아 지난 몇 년 동안 블라칸주, 뉴에바시아주에서 개최되어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하며 동참하게 되었다. 이른 아침 조별 QT로 하루를 열고 구국기도성회가 개최되는 바탕가스시 Convention Center로 이동한 선교팀은 팀별로 연습과 조율로 오전을 보냈다. 개회기도와 함께 필리핀 국가와 애국가를 제창하며 시작한 성회는 필리핀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온 성도가 하나되어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참가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필리핀과 한국과 주강사를 위하여" 간구한 후 우리 선교팀의 찬양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라파난타팀의 "아리랑"과 가락에 맞춘 난타로 시작한 찬양은 여성 중창단의 "Give Thanks", "Vision"으로 이어지고, 고운가루 몸찬양팀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Amazing Grace"에 맞춘 부채춤으로 은혜의 장을 펼쳤다. 이어진 미리내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아리랑 환타지아" 색소폰 연주, 소프라노 민은홍님의 "Italian street song", 테너 오승룡님의 "O Solemio", 두 분의 듀엣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할렐루야" 연주로 이어지며 많은 감동을 선사하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현지 찬양단과 함께 한 필리핀 가요 "아낙"의 열창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나누었다. 주강사인 이수형 목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하프타임"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김종국 선교사의 통역으로 은혜의 성회를 이끌어 주었다. 설교 후 다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과 감사패 전달과 축도로 대성회를 마쳤다.

넷째날(14일, 수) 오전 9시에 시작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호텔을 나온 선교팀을 실은 두 대의 버스는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현지 경찰관의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Livinstone 교회에 예정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찬양으로 연목회자 세미나는 순복음춘천교회 선교팀의 찬양과 경배에 이어 미리내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공연으로 은혜와 감동의 분위기로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 이어지는 설교에서 이수형 목사는 전날에 이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프타임"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회개와 변화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모든 참석자들과 큰 은혜를 나누었다. 오전의 세미나를 마친 선교팀은 엥겔레스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후 김종국 선교사가 섬기는 세계로방주교회와 Cohen신학대학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였다. 마지막 선교지인 GSI(Good Seeders International) 센터로 이동한 선교팀은 아이따 청소년 연합예배로 6시부터 9시30분까지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아이따 학생들의 전통복장과 방식으로 본 예배가 시작되고 선교팀의 준비된 찬양과 연주 후 박태하 목사(순복음봉덕교회)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되어 찬양하며 간구하는 시간이었다.

다섯째날(15일, 목) 아침 예배로 하루를 열고 아이따 마을에 나눌 쌀을 재포장하는 일로 섬김을 시작하였다. 계획된 일정은 산간 아이따 마을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을 체험하며 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정이었으나 계속된 우기의 장마로 지푸니로도 갈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접근이 가능한 벧엘마을로 옮겨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련한 식사를 제공하고 의류를 나누었다. 비록 풍족하게 채우지 못해 아쉬움도 컸지만 작은 손길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오는 길에 IBS(Immanuel Bible School)에서 사랑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감사가 넘쳤다. 오후 5시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따 학생 20명과 함께 도시와 백화점을 방문해보는 도시체험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여섯째 날(16일, 금) 이른 아침예배로 시작하여 짐 정리로 출발을 준비하고 박철환 선교사를 비롯한 현지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엥겔레스로 출발하였다. 지난해 3월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된 홍영기 선교사가 이제 1기 사역을 마치고 새롭게 2기 사역을 시작하며 "마라나타교회"를 창립하는 예배를 선교팀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거주하는 사택에서 홍영기선교사 가족과 3명의 유학생, 현지 도우미 가족을 중심으로 개척하는 마라나타 교회의 창립예배에서 이수형 담임목사는 사도행전 2장 46~47절을 본문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다. 함께 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축복하였다. 마닐라로 옮기는 버스 안에서는 이수형 목사의 인도로 단기선교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닐라에서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선교팀은 식사 후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수속을 밟고 밤 12시경 마닐라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토요일 새벽 5시경 인천공항에 착륙하였다.

일곱째 날(17일, 토) 짧은 잠에서 깨어나 인천공항에 입국한 선교팀은 이른 시간에 마중 나오신 안수집사님의 환영을 받으며 대형버스에 올라 춘천으로 향하였다. 토요일 아침이라 춘천행 도로가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춘천에 도착하여 아침식사 후 교회로 돌아와 도착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글 | 민경원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선교국장)

선교 3

한국CCC 창립 60주년, 제주선교 110주년

EXPLO 2018 제주선교대회 2018.6.26.~7.3

JESUS FOR JEJU, JEJU TO JESUS



EXPLO2018 제주선교대회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주새별오름(주집회장) 및 제주도 전역에서 "Jesus for Jeju, Jeju to Jesus" 라는 주제로 한국CCC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주강사는 박성민 목사(한국CCC 대표),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신관식 목사(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입니다.

올해는 한국CCC 창립 60주년이며, 제주선교 110주년이어서 제주선교대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답지만 4.3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인 되는 아픔을 간직한 땅입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 땅의 아픔과 슬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춘천 CCC에서는 약 170명의 지체들이 참석합니다. 일주일 동안 낮에는 해안가 청소등 봉사와 역사 탐방을 하게 되며, 매일 밤에는 제주 교계와 한국CCC 청년들이(약 2만명)이 함께 모여 집회를 하게 됩니다. 6월 30일 수련회를 마치면 3박 4일 동안 제주도 각 교회로 흩어져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주 선교대회가 끝나면 멕시코(12명), 잠비아(11명), 캄보디아 태국(19명), 캄보디아 의료선교(40명), 제주단기선교(7명)로 춘천CCC 지체 87명이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각 나라의 복음과 사역이 없는 캠퍼스에서 현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제자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개인이 160~280만원의 재정을 용돈, 아르바이트, 선교헌금 요청 등으로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재정이 풍성히 채워져서, 작은 춘천 땅에서부터 세계 선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글 | 박동인 간사 (춘천CCC)

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민국 아동복지 역사와 함께 걸어오다

1948년 전쟁고아 구호를 시작으로 국내 아동복지 사업에 첫 발 들여
정기결연후원금부터 주거, 의료비 지원, 인재양성프로젝트 및 아동 생활 환경개선 진행
지원사업 외에도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실종유괴예방교육 병행



2017년 11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가 원주시청에서 진행한 '2017 강원인재양성프로젝트' 발대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가 2018년 태백시 및 강원랜드, 2016년 정선군 및 하이원리조트와 함께 건립한 장난감도서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사명 아래 1948년 CCF 시절 전쟁고아 구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첫발을 들였다. 이후 국내외 아동복지사업을 기본으로 모금사업 및 연구조사와 함께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옹호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아동복지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2008년 한국복지재단에서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도내 대표적인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강원도만의 여러 특성들을 고려해 도에 특화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기초생활부터 성장, 보육, 학습지원에 필요한 정기결연후원금 지급을 기본으로 주거비와 의료비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명칭으로 도내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강원인재양성프로젝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도내 빈곤가정 아동 중에서 학업이나 예술, 체육 등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재능 계발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축구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초록우산FC'라는 이름으로 전문적으로 축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제대로 된 학습공간을 갖추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꾸며주는 '초록우산 공부방' 사업과 지역사회를 연계해 '장난감도서관' 건립 및 '지역아동센터' 신축, 아동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엘로카펫' 사업을 함께 진행해나가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 외에도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토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인성교육을, 만 3세에서 6세의 아이들에게는 아동 스스로 미아예방 및 유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종유괴예방교육을 병행해나가고 있다.

한편,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에서는 도내 개인 후원자 및 후원처들과 함께 아동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도내 아동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후원자 또는 후원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033-762-9171)를 통해 참여 또는 문의 가능하다.

글 | 김대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사업팀)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최동용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나누어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정서가 빠른 시일내에 하나되어 다시 춘천발전을 위해 서로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화합의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 드리며, 한반도의 평화라는 핑크빛 미래에 젖어 춘천의 현실을 좌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이뤄진 춘천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를 기원하오며, 춘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춘천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춘천 전시장 최동용 올림

통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테러설', '4월 위기설', '8월 전쟁설'이 끊이지 않던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훈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후 30년 만에 다시열린 2월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대규모 예술단, 응원단, 선수단의 전격참가를 통해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꿈같이 마련된 4월 남북정상회담(4.27)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에 합의하고,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였습니다. 6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가을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중일, 한러, 북중, 북일, 북러, 남북미, 남북미중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습니다. 짧게는 지난 25년 동안 풀리지 않던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길게는 지난 73년 동안 갈라져 갈등하던 우리민족과 주변4국(미 · 중 · 일 · 러)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탁월한 외교력, 김정은 위원장의 '강성국가 건설전략'과 용기 있는 결단,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 정책과 추진력이 맞물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대북압박과 보장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1차 동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2차 동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삼상 2:6)과 국가의 흥망성쇠(렘 18:6-10)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계획할 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잠 16:9)은 하나님이십니다. 2017년 세이레평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2018년 주제성구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렘 33:2-3)을 주셨습니다. 나라안팎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위기와 전쟁설만 난무하며 한반도의 미래가 내다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018년은 체제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민족은 1945년 북위 38도선의 국토분단,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8.15)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수립(9.9)으로 체제분단,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3년 동족상잔과 백성분단으로 인한 3중적 민족분단을 처절히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5년 국토분단 70년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후 북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삼천리금수강산에서 3차례 더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500만 북녘동포의 영혼구원과 복음통일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슬픔만 되었습니다. 민족근대화와 독립운동,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등 매 시기마다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며 영혼구원과 하나님나라운동에 진력하여 하나님과 민족 앞에 기쁨이 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방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체제분단 70년을 맞이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던 평양에 공산정권이 들어선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히브리인들이 성경예언대로 순종하여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포로였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포로생활 70년 뒤 해방을 약속하셨고,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들뜨면 안됩니다. 이제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개선'과 '자유화'와 우리사회의 '성결 · 경건 · 정직'을 통한 '정의와 사랑' 구현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차분히 계속합시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갑시다. 우리도 체제분단 70년에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합시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 북녘동포 영혼구원과 복음통일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해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며 복음통일을 준비 · 실천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 2-3)

글 | 허문영 박사 (평화한국 상임대표, 통일선교아카데미 원장)

말씀과 캘리그라피로 회복되는 나의 삶

말씀을 쓰며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매주 주제강의를 통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독교 캘리그라피 힐링교육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9월 힐링프로그램 강의 일정

프로그램명	요 일	기 간 (총7주/개강일 ~ 종강일)	시 간	강사명	장 소
춘천힐링 3기	목요일	2018.9.13 ~ 2018.10.25	10:30~13:00	문화선교회 지정강사	춘천지부

강의대상 삶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성도 및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있는 성도
강 의 료 수강료 70,000원 (교재/재료비 55,000원 별도)
접수 및 문의 www.cjcm.co.kr 010-4027-8231
접수마감 8월 31일(금)
교육장소 청현재이 문화선교회 춘천지부 (강원 춘천시 퇴계동 72-6 2층)

사설

흔들리는 터전



글 | 손학균 목사 (석사감리교회)

구세대와 신세대를 구분하는 많은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는 젊은이들에겐 '하고 싶은 일'이 당연히 먼저 일 것입니다. 반면에 삶의 단맛과 쓴 맛을 어느 정도 맛본 기성세대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어른들의 산아온 인생길을 돌이켜 본다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함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란 이렇게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맘껏 추구할 수 있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터전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터전에서는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꿈꿀 수 없고, 어른들 역시 '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땅이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농사한다 할지라도 땅이 좋지 못하면, 가을걷이 때 풍년가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의 기운을 돋우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받고 태어났을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에게 주어진 그 큰 능력은 그 자신에게나 주변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을사조약(1905.11.17)과 한일합방조약(1910.8.22)에 의해 1910년 8월 29일부터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기까지 36년간 이어진 일제의 식민통치를 당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철저하게 유린당하였고, 대한제국의 '터전'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국권을 뺏기고 개개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마저 다 빼앗긴 상태에서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꿈꾸거나 소원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어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36년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자주독립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이 터전의 마지막 기운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어른다운 어른을 만날 수 없고, 젊은이다운 젊은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겐 마땅히 있어야 할 이상이 없고, 어른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무책임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가을걷이를 통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반성하며, 씨앗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농부의 지혜는 땅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땅의 힘을 북돋는데서 그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어른다운 어른을 찾아볼 수 없고, 젊은이다운 젊은이를 만나기 어려운 아픔도 있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예 꿈 자체를 꿈꾸지 못하고, 어른들 역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8 · 15광복과 6 · 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져온 터전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전이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성숙한 어른들이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인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일본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것,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 역시 우리의 터전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터전을 형성하는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사회정신이 삐뚤어졌으며, 개개인 본성이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일그러졌을 때,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막을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결국은 민족상잔의 전쟁이라는 비극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터전은 과연 어떠합니까? 언론에 호도되는 사회정신, 있는 자들의 갑질, 소수의 특권 · 약자의 권리를 앞세워 역차별의 반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들은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전이 그 맨 밑바닥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도 중요하고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일, 복지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우리의 토대, 우리의 터전을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 이 사회에 대한 참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만을 이익에 집착하고 내 뜻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기에 앞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바른 가치관의 형성, 건강한 시민정신의 확립, 개개인의 인격도야와 같은 이 사회의 토대를 다시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옛 표현은 '생각'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극에 달한 이기주의, 모든 것을 수치로 바꿔 계산하는 상업주의적 가치관, 있는 자는 있기 때문에 감질하고,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천박한 근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성숙하지 못한 이 토양을 바꿔야만 합니다. 해방 73주년을 맞는 이때에, 먼저 믿은 성도로서 신앙인의 사회적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대한민국의 터전을 든든히 세우는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 정치, 군사, 외교, 그리고 사회복지로 우리의 터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터전만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 이야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F#단조

(Johannes BRAHAMS, 1833 - 1897: HUNGARIAN DANCES NO.5 F # Min.)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에 시원한 장대비라도 뿌려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저 흐렸다 개었다가 시나브로 마음만 설레게 만드는군요.

온통 푸르름이 가득한 산들과 강가를 걷는 산책길에서 절로 아름다운 음악들이 상쾌함을 더해줍니다.

이번 호에 준비한 음악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리따운 아가씨의 물음처럼 언제나 생기발랄한 헝가리 무곡입니다.

브람스는 독일이 낳은 낭만주의 음악가의 대표적 인물로서 독일의 3B〈바하,베토벤과 더불어…〉로 불리우며, 인기를 누렸던 그는 4권 21곡의 헝가리 무곡을 남겼습니다. 1869년에 1,2집(1번에서 10번까지) 그리고 1880년에 3,4집 11곡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곡들은 제1,3,5,6번입니다(특히 저는 5번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적에 즐겨보았던 〈톰과 제리〉의 명콤비들의 레퍼토리로도 가끔씩 등장해서 웃음을 주었었지요. … 브람스는 17살 때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를 만나면서 헝가리음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독일 함부르그 출신인 그의 고향과는 다른 이색적인 집시 음악에 매료되어 헝가리 민속 음악과 춤, 챠르다슈 풍의 곡들을 창작하거나 편곡하게 됩니다. 대체로 집시의 애환이나 우수 어린 감성을 느리게 시작하는 서주로부터 빠른 2박자의 차르다슈 형태의 흥겨운 곡으로 나가면서 마음을 들뜨게 만들지요. 평생에 그는 헝가리 풍의 멜로디를 간직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슈만을 만나게 되었을 때인 20세 때, 〈헝가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선보이게 되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원래 피아노 이중주 곡이었던 무곡 중에서 1번, 3번, 10번만 1885년에 오키스트라 용으로 편곡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그의 후배들이 완성시켰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한 피아노 곡으로 브람스를 선택해놓고 검색해보니 2009년에 신수정 선생님과 조성진 형제가 이중주로 연주한 자료가 있네요. 기회가 되시면 두분 사제지간에 멋진 이중주로 감상해보시지요.

이제 2018년의 전반기가 지나고 한 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어수선한 방학과 휴가의 계절이 지나면, 봄내의 가을은 성큼 다가오겠지요…너무 이른 기대인가요? 올해의 계획들이 아직 잘 진행되시길 바라면서…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과 함께 고즈넉한 석양의 강바람을 맞으며 잠시 여유를 부려보심이 어떨는지요?

봄내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서른 여섯 번째 음악이야기였습니다.

글 | 김 다니 선교사 <jdmdanny@yahoo.com>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질문



Q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나요?

장애, 성별, 피부, 국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의 성적자유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별, 인종, 피부, 장애, 나이, 국적, 민족, 언어 등과 같이 선천적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성적 자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자율적인 선택으로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동성애의 성적자유가 차별금지 사유가 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형사법으로 처벌한다면,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것입니다. 동성애에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과반수가 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성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차별사유로 포함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2016년 11월 수업시간에 동성애의 실체 등을 소개하였는데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해당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해당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교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히 침해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유명사립대학 TWU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학칙이 있다는 사유로 법률전문대학원의 설립인가가 취소당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학은 정부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적 교육을 위해 설립된 많은 기독교 교육기관은 설립 취지가 침해되어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훼손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의 성적자유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면 차세대 교육에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동성애 옹호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동성애 성교육이 의무교육이 되고, 학부모는 학교의 동성애 교육을 반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교육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미국의 예처럼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국 182개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적 지향이 포함된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제정하라고 권고하였고, 90일 이내에 이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만약 인권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제정될 경우 대학 내 수업(채플 및 예배, 행사 등 포함)등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일체 할 수 없어 대학 내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것입니다. 인권위의 표현은 권고이지만, 교육부에 대학평가제도에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은 의무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가 2015년 7월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각 대학에 배포한 후 대학별로 제정하라고 하여 각 대학에서는 이를 제정 중에 있는데, 인권위는 성적 지향만을 추가한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기망적인 방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적 지향이 차별적 사유로 포함된 것과 같이 인권위가 각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도 전문가가 아니면, 권고안에 성적 지향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여 많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동성애의 성적 자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면 일부다처,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도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부도덕한 행위가 정당화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시민결합제도 혹은 생활동반자관계를 위한 생활동반자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물꼬를 터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글. 편집부



2018 블레싱 춘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 상반기 사역인 블레싱 춘천이 6월 1일(금) 저녁 8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열렸다. 본부장 조영춘 목사의 사회로 순복음춘천교회 호산나 찬양단의 경배와 찬양이 있은 후, 홀리클럽 회장 임윤식 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 이사 신성균 목사(원천순복음교회)의 "사도행전 4장 17~21절"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이사장 박인관 목사(광염교회)의 인사말이 있은 후, 초청강사인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 전 국가조찬기도회장)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간증과 농림부 장관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롭게 전해 주었다. 이어 주향교회 헵시바 위십팀의 헌금찬양과, 부본부장 이병철 목사(주향교회)이 헌금 기도로 1부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기도회에서는 수석부이사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사회로 춘천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종익 목사(광명교회)가 춘천교회 연합과 성시화 운동 확산을 위해, 만인기도운동과 성시본부 15위원회 구성을 위해, 직장선교회, 군교회등 일터교회 활성화를 위해 기도드렸다. 이어 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 홍요셉 목사(예사랑교회)가 동성애, 이슬람 대책을 위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열방 선교사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또 춘천목회자연합회 직전회장 손학균 목사(석사교회)가 6.13 지방 선거와 위정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미 회담 개최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드리고, 춘천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박상철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축도로 블레싱 춘천을 마쳤다.

춘천홀리클럽 창립 22주년 감사예배



춘천홀리클럽 창립 22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5월 27일(주일) 오후 2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김성욱 강사(북한기도운동 지저스웨이브 대표)를 모시고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이라는 주제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는 필리핀 아이따족 선교사 팀의 민속공연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이 날 사회는 부회장 조정일 장로(광장감리교회), 대표기도는 부회장 심의섭 장로(중앙감리교회), 인사말씀은 회장 임윤식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각각 맡았다. 이어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박인관 목사(광염교회)의 격려사가 있은 후, 홀리클럽 영상 사역소개가 이어졌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김성욱 박사는 "길을 여는 자(미가서 2장 13절)"라는 제목으로 현재 한반도 상황을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시고,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라와 민족, 춘천성시화를 위해 합심 기도 후,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축도로 춘천홀리클럽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마쳤다. 이 날 드려진 헌금 중 2/3는 필리핀 아이따족 선교팀에게 전달되었다.

(명예기자 춘천홀리클럽 사무국장 석기호 장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78차 춘천모임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78차 6월 춘천모임이 6월 11일(월) 저녁 7시 15분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있었다. 78차 모임 강사는 이윤기 목사(평화한국 사무총장, 한립성심대 겸임교수)였고, 평화한국 세이레평화기도회가 함께 했다. 79차 7월 모임은 7월 9일(월)에 열리고, 강사는 이종만 목사(오픈도어 선교회)가 초빙된다.

2018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부흥성회



경찰가족과 춘천 복음화를 위한 부흥성회가 6월 17일(주일) 저녁 7시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김원중 회장) 주최로 열렸다. 이날 부흥성회는 주향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수석부회장 이병철 목사(주향교회)의 사회로 송재근 목사(순복음명성교회)의 대표기도, 신현천 목사(세누리교회)의 "마 5:16" 성경봉독이 있었다. 주향교회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회장 김원중 목사(춘천우리교회)의 회장 인사가 있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성수 안수집사(부산경찰청 경무과장, 부산수영로교회)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진도를 생활화 하는 간증으로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 회계 김병철 목사(주성원장로교회)의 헌금 기도가 있은 후, 헌금 찬양에는 이경수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색소폰 연주로 찬양을 드렸다. 총무 강한돌 목사(광판장로교회)의 광고, '경찰가족과 춘천 복음화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성기도를 드린 후, 증정회장 박제영 목사(춘천소망성결교회)의 축도로 부흥성회를 마쳤다.

월드비전 익투스여성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Hope & Joy Concert"



2018년 6월 23일(토),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창일)에서는 익투스여성합창단(단장 랑은주) 제7회 정기연주회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였다. 이영화 지휘자의 지휘로 "Hope & Joy Concert" 라는 주제로 단원들의 아름답고 풍성한 음색이 춘천시민에게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GBT 춘천지부 연합예배



GBT 춘천지부 연합예배가 6월 24일(주일) 오후 2시에 춘천장로교회에서 있었다. 연합예배는 김원중 목사(춘천우리교회)의 사회로 407장 찬송 후, 이병철 목사(주향교회)의 대표 기도가 이어졌다. 설교에는 진대인 선교사가 창세기 22장 1~19절 성경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건강한 믿음은 DNA"라는 제목으로 있었다. 봉헌기도에는 권기찬 목사(예담교회)가 드렸고, GBT 춘천지부 이사회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지태성 목사(춘천장로교회)의 축도로 연합예배를 마무리했다. 세계선교와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한 GBT 지부(김주미 사무장) 기도회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지부 사무실에서 있다.

춘천시기독장로연합회 주최 제3회 6.25 구국기도회



메년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갖고 있는 춘천시기독장로연합회(회장 김정호 장로)가 제3회 6.25 구국기도회(후원 춘천기독교연합회, 홀리클럽)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4일(주일) 저녁 7시 30분에 춘천제일장로교회(김창성 목사)에서 열렸다. 6.25전쟁 68주년을 기념하고, 나라사랑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열린 이번 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김정호 장로(춘천시기독장로연합회장, 춘천제일장로교회)의 사회로 김인수 장로(부회장, 중앙성결교회)의 대표기도, 진상용 장로(감사, 춘천제일감리교회)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강사로 초빙된 이용남 선교사(세계선교공동체 대표)가 말씀을 전했다. 이용남 선교사는 "100년의 역사가 조금 넘는 기독교가 근대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 놀랍게 사용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전했다. 덧붙여 "우리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이들을 잊지 말며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말했다.

이어진 2부 기도회에서는 탁광희 장로(부회장, 춘천제일감리교회)의 사회로 김진현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의 애국가 제창에 이어 황병호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 이영규 장로(석사감리교회), 엄제달 장로(중앙성결교회), 김용헌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하

여' '춘천의 성시화와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이비 및 이단 척결과 국군장병들을 위하여', '민족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였다.

구국기도회에 모인 많은 성도들은 CTS 춘천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6.25 노래'와 '우리의 소원'을 불렀다. 이어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박인관 목사(광염감리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명예기자 춘천시기독장로연합회장 춘천제일장로교회 김정호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2군단 포병여단 안보특별 종교교육 실시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 기하성 군선교위원장)는 지난 6월 28일(목)에 2군단 포병여단 안보특별 종교교육 강사로 홍천, 횡성 2개 대대를 순회하면서, 각 대대 군인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병영생활 속의 자아정체성 형성)"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보특별 종교교육은 장병들에게 신앙을 통한 안보의식 고양 및 가치관과 국가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건전한 국가관을 지닌 종교계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각 부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목사는 각 부대 방문 시 부대의 안전과 지휘관을 위하여 축복기도를 했으며, 장병들에게 준비한 간식을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순복음춘천교회 군선교회 임원들이 함께 참석해 지휘관들과 함께 국가 안보와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비를 전달했다.

(명예기자 순복음춘천교회 정종승 목사)

"M원리전략 전도세미나" 춘천주향교회에서 열려

지저스피플과 M원리전략전도협의회(공동대표 손현욱 목사)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M원리전략 전도세미나"가 6월 23일(토)과 30일(토) 양일에 걸쳐 춘천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M원리전략 전도세미나는 한국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최첨단의 전략적인 전도방법으로 믿지 않는 이들은 물론 이단에 속한 이들도 돌아오는 획기적인 전도방법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 또한 다음세대를 향한 훌륭한 접촉점과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어 다음세대에 관심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꼭 들어야 할 전략적인 전도프로그램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M원리전략 전도세미나를 시행하는 모든 교회에는 전 성도들에게 최첨단 모바일검사 전도 도구를 장착시켜, 1인당 7회(1회 3만원상당/7회 21만원상당)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전교인이 1명씩은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M원리전략전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자격교육을 수강하고 지도사로 활동하는 경우, 협의회에서 평생 모바일 내면검사(전략전도)프로그램도 선교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손현욱 목사는 밝혔다.

엘리엘 찬양집회 "김용의 선교사 초빙"

다음 세대를 깨우고자 초교파로 중, 고, 청년들 연합으로 열리고 있는 엘리엘 찬양집회가 매월 1회 안디옥교회(유진형 목사)에서 열리고 있다. 복음과 선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선포와 은혜로운 찬양으로 춘천지역의 중, 고, 청년 부흥, 선교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엘리엘 찬양팀은 찬양사역을 원하는 교회나 집회의 요청을 받고 있다. 특별히 이번 7월 엘리엘 찬양집회는 21일(토) 오후 5시에 갖는다. 복음과 기도로써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루자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외치시는 김용의 선교사님(순회선교단)이 특별 강사로 초빙된다. □집회문의: 엘리엘 찬양팀장 강희진 청년 (010-4691-5152), 단장 최용신 집사 (010-6311-2454)

'해방둥이' 선교 모임

강원도 전역 의료봉사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는 '해방둥이' 선교 모임이 2개월 마다 1회씩 정기모임을 영파장(만천리)에서 갖고 있다.(문의: 김종열 장로 010-5372-6016)

2018년 73차 8.15 기념예배 "이만열 교수 초빙"

42018년 73차 8.15 기념예배가 8월 15일(수) 저녁 7시에 중앙감리교회(권오서 감독)에서 춘천목회자연합회(홍요셉 목사) 주최로 드려진다. 이날 강사는 이만열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초빙된다.

취재/사진. 이은정

여름 사역을 소개합니다

예수전도단

· 예수전도단 간사총회
일시: 8월 20-24일
장소: 횡성 웰리힐리파크

· UDTS(대학생 예수제자훈련학교)
일시: 6월 20일-19년 2월 초
장소: 천안, 춘천 각 캠퍼스, 해외 전도여행지

춘천 CCC

· CCC 단기선교
일시: 제주선교대회 후,
장소: 멕시코(12명), 잠비아(11명), 캄보디아 태국(19명), 캄보디아 의료선교(40명), 제주단기선교(7명)로 춘천CCC지체 87명

어린이전도협회

· 어린이여름성경캠프
일시: 7월 30일-8월 1일(월화수)
등록비: 6만원(7월 14일까지 선등록 55,000원)
장소: 참빛기도원(강원도 화천)

· 3일 클럽 전도자 훈련
좋은 교사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일시: 7월 2일-6일(4박5일 합숙훈련)
대상: 교회학교 담당자, 교사, 대학생, 청소년, 전도자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장소: 강릉강동교회
훈련비: 12만원

JDM

· 해외선교훈련
일시: 7월 3일 -7월 13일
장소: 케냐 나이로비/K국가

· JDM청소년수련회 "제대로 사는 자"
일시: 7월 25일 - 7월 28일
장소: 제천 대원대학교

· 가족수양회
"세상의 중심에서 소망을 외치라"
일시: 7월 30일 - 8월 3일
장소: JDM훈련센터

IVF

· Bless School
일시: 6월 25~29일
장소: 횡성 서초휴양소

· 평화기행
일시: 7월 3~13일 / 장소: 중국

· 나음누리학생캠프
일시: 7월 17~19일 / 장소: 대전

· 선교한국 2018
일시: 8월 6~9일 / 장소: 세종대학교

· 블레스 캠프
일시: 8월 20~24일 / 장소: 춘천회관

월드비전

· 강원어린이합창단 캠프
일시 : 2018. 7. 23(월) ~ 7. 24(화)
대상 : 단원 26명(초2~중2), 지휘자 및 발성 강자 반주자 3명,
장소 : 양구DMZ산림두드림센터
내용 : 합창 및 발성 심화교육, 공동체 게임 등

· 청소년연극놀이캠프
일시 : 2018. 7. 26(목) ~ 7. 27(금)
대상 : 중학생 13명, 멘토(대학생) 3명, 강사 1명
장소 : 양구DMZ산림두드림센터
내용 : 연극놀이 공연 준비 및 공동체 활동 등

· 꿈디자이너 비전원정대 국토대장정
일시 : 2018. 7. 30(월) ~ 8. 3(금) 4박 5일
대상 : 중학생 약 320여명,
장소 : 삼척->동해->강릉->여의도 일대
내용 : 행군 및 저녁 조별 프로그램 등

· 제10회 강원아동총회 및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 10주년 행사
일시 : 2018. 7. 26(목) ~ 7. 27(금)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 고등학생 약 80여명, 내빈 100여명,
장소 : 춘천베어스관광호텔 2층 소양홀
내용 : 강원아동총회_18개 시군 아동 총회 의장단 학생들의 정책 결의문 채택을 위한 토론 및 다양한 활동 실시
10주년 행사_10주년 성과발표 및 선배 의장단 학생들의 사례발표, 토크 콘서트 등 실시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월 1회
장소 : 순회 시행
회비 : 회원 회비
문의 : 010.9095.5391 (사무국장)

춘천성시합창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 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

춘천꿀리데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 목회자 시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 (지휘자)

교회음악(지휘)스터디 모임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후핑 2동 주민센터 뒤
(부안초교 근처)
시온 피아노 교습소

협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 010.8798.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cjmm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0.5596.3702 (총무 최재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 더즐거운탁구(후평1단지시장입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 합기도선도관(빅물관 앞)
문의 : 010.3585.3620 (이영규 목사)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민들레 중보기도회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장소 : 와이신협 3층 회의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흠 강상오 강성복 강옥자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정희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채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기영 김도희 김두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리 김미숙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목
김상화 김생수 김성희 김세환 김수국 김수연 김수일
김수정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양수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용배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일섭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의 김종녀
김종숙 김종옥 김중익 김중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지훈 김진숙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태현
김학자 김현주 김형옥 김혜란 김혜숙 김화분 남궁자
남상구 남준섭 남하은 나정희 노길자 노윤미 노정호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박갑출 박경미 박금희 박금희
박노향 박덕남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정 박인순
박병화 박상혁 박소영 박순배 박애자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애 박종일 박지환 박춘자 박필상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중복 방진선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묘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현애
석지한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임순 손학균 송갑수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상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중길 심규향 심효선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업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성남 오순자 오제영 오준영 오흠금 오흠수 용애중
용영옥 원병열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정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성자 윤애자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이가현 이갑용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호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은희 이미경 이미영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상만 이상숙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성은 이소영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숙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종완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스희
임수경 임순희 임쌍용 임영광 임우선 임인숙 임청용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은희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양자 전윤배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명옥 정미경
정미선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지혜 정진호 정처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경희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은비 조진겸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지정훈 차경자
차재욱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돈식
최명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희 최연화 최영달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순 최은영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최홍준 탁광희 하윤옥 한건영
한명수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진희 함준현
허 엽 허순영 허인영 허정자 현순덕 현연희 현재용
홍성애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영희 황은주 황정숙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영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금산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창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산솔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교회 신성감리교회 아이교회
엠마오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교회
춘천예담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한빛교회 한울성결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춘천와이신협 영광한의원 매일관광
행복재가요양기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아가갤러리 베드로선교문화센터 월드비전
설곡산기도원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춘천성시신문을 개별 배송 원하시면,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세요

☎ 033-256-1260